저자 서문

저자 서문 · 저자 서문

『신앙감정론』 저자 서문, 인쇄 133~140쪽

🧭 흐름 한눈에

에드워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신앙을 무엇으로 알아보는가”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세우며 서문을 연다. 그런데 이 질문은 신자들 사이에서 가장 의견이 갈리는 문제이기도 하다. 지금은 논쟁이 격렬해서 공정하게 쓰고 읽기가 어렵다. 그래도 그는 부흥의 좋은 점은 사랑하고 나쁜 점은 반박하는 길만이 진리의 길이라고 말한다. 이어서 성경과 교회사를 근거로 든다. 요시야, 세례 요한, 예수님, 사도 시대, 종교개혁 때마다 참된 부흥에는 늘 거짓 신앙이 섞였다는 것이다. 마귀는 바로 이 '섞어 놓기'로 박해보다 더 큰 피해를 입혀 왔고, 최근 뉴잉글랜드의 부흥도 그렇게 무너졌다. 그러니 참된 신앙의 본질과 표지를 분명히 하는 일이 시급하다. 에드워즈는 이 책이 바로 그 일을 하려 한다고 목적을 밝히며 서문을 맺는다.

🪪 표지 카드

(표지 장 아님)

📜 절별 정리

📜 1. 가장 중요한 질문: 참된 신앙을 무엇으로 알아보는가

에드워즈는 모든 사람이 확실한 답을 가져야 할 질문을 하나 던진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원한 삶을 받을 사람을 구별해 주는 특징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문제에 분명하고 풍성한 빛을 준다고 본다. 그런데도 신앙고백자(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사이에서 이만큼 의견이 갈리는 문제는 없다. 에드워즈는 그 이유를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는다. 생명의 길은 좁고 찾는 이가 적다. 그러니 "나는 당연히 그 길 위에 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그는 신학 공부를 시작한 뒤로 이 문제를 가장 오래, 가장 진지하게 붙들어 왔다고 고백한다. 연구가 성공했는지는 독자가 판단하라고 맡긴다.

1. 참된 신앙의 표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2. 성경은 이 문제에 분명한 빛을 준다
3. 그런데도 신자들의 의견이 가장 갈린다
4. 생명의 길은 좁고 찾는 이가 적다
5. 저자가 평생 붙든 주제다

> **마태복음 7:14**
>
> 참된 신앙은 흔하지 않으니 진짜와 가짜를 꼭 가려야 한다는 출발점
>
>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 2. 논쟁의 한복판에서 공정하게 쓰기

이 책이 나올 무렵 그 땅은 신앙 문제를 둘러싼 논쟁으로 뜨거웠다. 그래서 공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공정하게 쓰기는 더 어렵고, 공정하게 읽기는 더더욱 어렵다. 에드워즈는 세 부류의 반응을 예상한다. 자기가 아끼던 신앙감정(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강하게 끌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정죄되는 것을 보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너무 많은 것을 인정한다며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무엇은 인정하고 무엇은 정죄하니 일관성이 없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그는 길을 바꾸지 않는다. 최근 부흥의 영광스러운 면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해로운 면은 진지하게 반박해야 진리와 그리스도 나라의 길에 설 수 있다는 것이다. 교회 안에 선과 악이 섞인 것도 신비롭고, 은혜를 받은 성도 안에 부패와 위선이 섞인 것도 신비롭다. 하지만 에드워즈는 이것이 새롭거나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2. 상처받는 쪽, 분노하는 쪽 모두 예상한다
3. 좋은 것은 사랑하고 나쁜 것은 반박한다
4. 교회에도 성도 안에도 선악이 섞여 있다
5. 섞임은 신비롭지만 새로운 일은 아니다

> **(이 단락에는 직접 인용한 구절 없음)**
> 다음 절의 성경 역사로 근거를 댄다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선과 악이 함께 섞여 있다는 사실은 아주 신비한 것이다."

📜 3. 부흥 때마다 가짜가 함께 자랐다

에드워즈는 "참된 부흥 때 거짓 신앙도 번성한다"는 것을 성경 역사로 하나씩 보여 준다. 첫째, 요시야 왕의 개혁 때도 백성의 돌아옴은 진심이 아니었다. 그의 통치가 끝나자 곧 큰 배도가 일어났다. 둘째, 세례 요한 때 성령이 강하게 부어졌지만 많은 사람은 그 빛을 "잠시" 즐겼을 뿐 곧 떠났다. 셋째, 예수님의 설교에 군중이 크게 감동하고 기뻐했지만 참된 제자가 된 사람은 소수였다. 큰 시련을 견디고 끝까지 남은 사람도 그들뿐이었다. 에드워즈는 씨 뿌리는 비유의 그림을 빌려 이렇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돌밭과 가시밭이었고 옥토는 적었다. 곡식단 대부분이 쭉정이라 바람에 날아갔다. 넷째, 사도 시대에도, 로마 교회에서 벗어난 종교개혁 때에도 같은 일이 있었다. 그는 이것을 봄나무에 비유한다. 꽃과 어린 열매가 가득 달렸지만 대부분 떨어져 익은 열매가 되지 못한다.

1. 요시야 개혁에도 거짓 돌아옴이 섞였다
2. 세례 요한의 빛을 '잠시' 즐긴 사람들
3. 예수님께 감동한 군중 중 소수만 제자
4. 사도 시대와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였다

예레미야 3:10

요시야 개혁 때 유다가 진심이 아닌 거짓으로 돌아왔음을 보여 줌

>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4:3~4

겉의 개혁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필요했다는 증거

> 3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4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 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요한복음 5:35

요한의 빛을 잠시 즐긴 사람들, 일시적 기쁨의 실례

>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마태복음 22:14

감동받은 군중은 많아도 참된 제자는 적다

>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4:10~13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사랑이 식으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음

> 10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갈라디아서 3:1, 4:11, 4:15

갈라디아서 3:1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서 4:11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갈라디아서 4:15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빌립보서 2:21, 3:18~19

사도 시대 교회 안에도 자기 일만 구하는 자와 십자가의 원수가 있었음

빌립보서 2:21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빌립보서 3:18-19 18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9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참된 신앙이 크게 부흥하는 때에 많은 거짓 신앙이 창궐한다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 4. 그러나 교회가 더 순수해질 때가 온다

에드워즈는 "늘 이럴 수밖에 없다"는 체념을 막는다. 이 세상에서는 부패가 전혀 없는 성도도, 위선자가 하나도 없는 교회도 없다. 그래도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깨끗해질 시기가 온다는 것은 여러 예언에서 분명하다. 그때 교회가 깨끗해지는 큰 이유 하나는 하나님이 백성에게 참된 신앙과 모조품을 가려낼 더 큰 빛을 주시기 때문이다. 말라기 3장이 그 근거다. 하나님은 은을 연단하는 사람처럼 앉아 레위

않는 자를 분별하게 된다. 이 대목은 분별을 위한 노력, 곧 이 책의 작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화의 방향과 같은 쪽을 향한다는 뜻을 품고 있다.

1. 이 세상에 완전히 순수한 교회는 없다
2. 그래도 더 순수해질 시기가 약속되었다
3. 그 비결은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더 큰 빛
4. 하나님은 은 연단자처럼 정결케 하신다
5. 분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다

> **이사야 52:1**
> 부정한 자가 다시 들어오지 못할 거룩한 성의 약속
>
>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 **에스겔 44:6~7, 9**
>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자를 성소에 들이지 말라, 교회 정결의 그림
>
> **에스겔 44:6-7** 6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7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히므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
> **에스겔 44:9**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 **요엘 3:17, 스가랴 14:21**
> 이방인이 다시 지나가지 못하고 가나안 사람이 없을 거룩한 날
>
> **요엘 3:17**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못하리로다

스가랴 14:21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사야 35:8, 10

부정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는 '거룩한 길'

이사야 35:8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인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이사야 35:10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사야 4:3~4, 에스겔 20:38

하나님이 찌꺼기를 씻고 반역자를 가려내심

이사야 4:3-4 3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4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에스겔 20:38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시편 37:9~11, 29

결국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의인과 온유한 자

시편 37:9-11 9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0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 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11]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37:29 의인이 땅을 차지함이여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말라기 3:3

은 연단자처럼 백성을 깨끗하게 하심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말라기 3:18

그때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게 됨, 분별의 빛이 정화의 열쇠

그 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시편 69:32, 35~36도 함께 열거된다.)

📜 5. 마귀의 가장 큰 무기: 섞어 놓기

에드워즈는 마귀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긴 주된 방법이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을 섞어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고 진단한다. 그는 이 '섞기'가 사도 시대에 유대인과 이교도의 박해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해를 끼쳤다고 본다. 사도들도 서신에서 바깥의 박해보다 안의 거짓에 더 신경을 썼다. 종교개혁 때도 같았다. 마귀는 로마 교회의 피 흘린 박해보다 열 배나 강하게, 루터와 츠빙글리가 시작한 개혁을 이 방법으로 방해했다. 종교개혁 이후 '우리 나라'의 부흥들, 약 100년 전 뉴잉글랜드, 그리고 최근 복되게 시작된 뉴잉글랜드의 큰 부흥도 이렇게 무너졌다. 에드워즈는 그 모습을 큰 기쁨 직후 찢기고 상처 입어 쓰러진 '시온의 딸'로 그린다. 그는 마귀의 이 수법이 에덴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마귀는 첫 부모에게 행복을 지켜 주는 친구처럼

1. 마귀는 진짜와 가짜를 섞어 이긴다
2. 섞기가 박해보다 더 큰 해를 끼쳤다
3. 종교개혁과 뉴잉글랜드 부흥도 그랬다
4. 큰 기쁨 직후 쓰러진 시온의 딸
5. 친구인 척 다가오는 에덴의 수법

> **예레미야애가 1:17**
> 위로할 자 없이 쓰러진 시온, 무너진 부흥 뒤 교회의 모습
>
>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 **고린도후서 11:3 (표현을 빌린 암시)**
> 하와를 속인 뱀이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함에서 떼어 놓는다
>
> **고린도후서 11:3**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 6. 섞임이 낳는 치명적 결과들

에드워즈는 부흥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위험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곳에서 가장 크게 다친다고 말한다. 눈앞의 공공연한 반대자와 싸우는 동안 마귀가 뒤에서 칼을 꽂는다는 것이다. 참과 거짓이 가려지지 않으면 결과는 치명적이다. 마귀는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드리게 한다. 많은 사람이 자기 영적 상태를 오해해서,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줄 알고 영원히 망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역겨운 위선자(겉으로만 경건한 사람)가 자기는 특별히 거룩하다고 확신하게 된다. 참 성도의 신앙도 상처 입고 흐려져서, 오래 두어 벌레 먹고 냄새나는 만나처럼 썩는다. 성도들은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 광야에 갇힌다. 그 사이 신앙의 반대자들은 무기를 얻고 교회는 성벽 없는 성이 된다.

서로 싸우고, 신앙은 말다툼으로 변한다. 양쪽이 각자 끌리는 극단으로 치우치면서 가운데의 바른 길은 보이지 않게 된다. 끝내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발을 디딜지 모르게 되고, 이단과 불신앙과 무신론이 퍼진다.

1. 마귀는 부흥을 지키는 이를 뒤에서 찌른다
2. '봉사'의 이름으로 역겨운 것을 바친다
3. 위선자가 자기는 거룩하다고 확신한다
4. 성도의 감정도 썩은 만나처럼 변한다
5. 열정의 이름으로 싸우다 양극단에 선다

> **출애굽기 16:20 (만나 이미지의 배경)**
> 오래 두어 벌레 먹고 냄새난 만나처럼 타락한 신앙감정의 비유
>
> **출애굽기 16:20**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 7. 이 책의 목적: 구원하는 역사의 표지를 가려내기

그러므로 참된 신앙의 본질을 분명히 하고 확립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 부흥도 잠깐뿐일 것이다. 무엇을 주장해야 하는지 모르는 채로는 대화와 출판으로 아무리 뜨겁게 토론해도 얻는 것이 적다. 에드워즈는 이 책이 그 일에 힘을 보태려 한다고 밝힌다. 그리고 이전에 출판된 책들과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짚는다. 이전 책들은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와 구원하는 역사를 모두 포함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표지를 다뤘다. 이 책은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 곧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사만의 본질과 표지를 보여 주려 한다. 겉보기에 비슷하고 사람들이 주목하지만 구원에 이르지는 않는 다른 모든 영향과 구별하려는 것이다(재료는 그 이전 책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그는 이 비판의 시대에 어떤 평가를 받든 하나님이 자기 노력의 신실함을 받아 주시기를 구한다. 그리고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정한 판단과 기도를 부탁한다.

1. 본질을 분명히 해야 부흥이 오래간다

3. 이 책의 관심은 '구원하는' 역사의 표지
4. 일반적 영향과 구원하는 은혜를 구별한다
5. 공정한 판단과 기도를 부탁한다

> **(이 단락에는 직접 인용한 구절 없음)**
> 서문의 목적 선언

⚖️ 오해와 반론

📖 용어

참된 신앙(true religion)
하나님이 받으시는, 구원과 연결된 진짜 경건을 말한다.

신앙감정(religious affections)
하나님과 신앙의 일에 마음이 강하게 끌리거나 움직이는 것이다. 이 책 전체의 주제다.

신앙고백자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다. 그중에는 진짜도 가짜도 있다.

위선자
겉모습과 확신은 성도 같지만 마음에 참된 은혜가 없는 사람이다.

부흥(revival)
많은 사람이 짧은 기간에 신앙에 크게 깨어나는 일이다. 에드워즈는 뉴잉글랜드의 최근 부흥을 겪었다.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
사람을 감동시키고 깨우지만 그 자체로는 구원에 이르지 않는 성령의 영향이다.

성령의 구원하는(은혜로운) 역사

모조품

참된 은혜와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본질이 다른 거짓 경험과 감정이다.

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를 말한다. 참 성도와 위선자가 섞여 있다.

<details>
<summary>⚖️ 거짓과 참</summary>
</details>

<details>
<summary>💬 청년의 삶으로</summary>
</details>

<details open>
<summary>✅ 이 장의 결론</summary>

- 참된 신앙을 가려내는 표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 부흥 때마다 참과 거짓은 늘 섞여 있었고, 이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박해가 아니라 진짜와 가짜를 섞어 분별을 막는 것이다.
- 하나님은 분별의 빛을 주어 교회를 더 순수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 그래서 이 책은 구원하는 은혜의 본질과 표지를 가려내려 한다.
</details>

<details open>
<summary>🎬 이 장을 쓰는 편</summary>

- 신앙감정론 1편 · 수련회의 뜨거움은 어디로 갔을까 · 에드워즈와 신앙감정론 지도
</details>

빛다방 학습 노트 · 조나단 에드워즈 『신앙감정론』(부흥과개혁사, 정성욱 역)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표지 카드 문장은 1746년 영문 원문(공유 저작물)에서 새로 옮겼습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